

고흥 나라올라우주랜드, 새로운 나들이 명소 '우뚝'

해장만오토캠핑장 연계...체류형 우주 테마 구현 1박 2일 가족 관광코스...“아이들 놀이공간 확대”



고흥 나라올라우주랜드

고흥 해장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토캠핑장을 연계한 '나라올라우주랜드'가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장만 일원에 조성된 '나라올라우주랜드'는 팔영대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해안 관광축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실내의 복합 어린이 테마놀이터다.

총사업비 36억원(국비 20억원·군비 16억원)을 투입해 3년에 걸쳐 지난해 7월 준공했으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시설을 갖췄다. 특히 우주선 모양의 건축 디자인과 야외

놀이시설은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며, 나로호 이미지를 접목해 고흥군만의 '우주' 테마를 실감나게 구현했다.

시설 1층에는 그리기 체험존, 슈팅 게임존, 휴게공간을 배치했으며, 2층에는 그물망 종합 놀이대, 볼풀장, 트램펄린 등 신체활동 중심의 놀이시설을 갖췄다. 야외 공간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꾸며져, 해장만 오토캠핑장과 연계한 '1박 2일 가족 체류형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시설 운영을 통해 해장만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라올라우주랜드 이용은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되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차(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1~3시, 오후 3시30분~오후 5시30분)로 나눠 각 2시간씩 운영된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 종료 다음 날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장만을 가족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보성,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로 재난 대응 1만2000여가구 설치 완료...주민 95% 만족

보성군이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2년간 1만2000여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를 보급해 집 안에서도 마을방송을 선명하게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현대화된 주택 구조와 난청 지역 등으로 기존 마을방송 청취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집 안에서도 각종 행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수신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마을과 떨어진 생활 환경에서도 문화 행사, 영농 교육, 행정 안내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 소통이 한층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외출 후에도 녹음된 방송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반응이다.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는 재난 대응 측면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재난 위험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신기를 통해 집 안에서도 방송을 명확하게 청취할 수 있어 심야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군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848명 중 수신기 설치에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이유는 깨끗한 방송 청취(81.5%), 농진 방송 재청취 기능(53%), 시계 기능 등 편리성(52.1%) 등이 꼽혔다.

현재 수신기 설치율은 71.2%를 달성했으며, 올해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아 장마철 이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통해 주민 소통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장흥,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무료검사 100여명 대상...조기 발견·맞춤형 사후관리

장흥군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망막병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한 뒤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받아 협야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뇌졸중 위험도 예측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검사,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망막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저검사 등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건강상담과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합병증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



장흥군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곡성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남 최초로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곡성군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전남 최초'

주민참여형 에너지소득 모델 구축...마을 공동체 활성화

곡성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마을주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정부의 세부 시행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의 공극증을 해소하고 향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단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민원실, 인구정책과, 군민협력과, 농정과 등 5개 행정 부서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

하는 범기관 협력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모 선정 전 단계(마을협동조합 구성, 입지 발굴, 부지 임대 컨설팅), 공모 선정 후 단계(금융 상담, 추가 지원 방안 협의), 시행 단계(설계·시공·운영 컨설팅), 사후 관리(운영 역량 강화, 수익 배분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사전 수요 조사를 마친 30개 마을은 별도 절차 없이 우선 컨설팅을 시작하고,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사업 준비가 된 마을을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곡성군 전역에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군도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곡성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 '루미퐁이' 월페이퍼로 MZ세대 공략

캐릭터 브랜드 강화 관광지 알리기 매진

순천시는 시 공식 마스코트인 '루미퐁이'의 친밀도를 높이고 시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계절별 테마를 담은 스마트폰, PC용 월페이퍼(배경화면)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매월 제작되는 월페이퍼는 순천의 자연경관과 주요 관광지,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일러스트로 구성된다.

특히 단순 캐릭터 나열 방식을 벗어나 해당 월에 맞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고 순천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작된 월페이퍼는 순천시 공식 블로그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해 자신의 기기에 맞는 해상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루미와 퐁이는 흑두루미(루미)와 쌍둥이(퐁이)를 모티브로 한 순천시의 마스코트로, 시는 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공공디자인 적용, 이벤트 개최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루미퐁이 월페이

퍼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순천시의 캐릭터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동시에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젊고 감각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시-광양외식업지부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광양시와 광양외식업지부는 최근 제32회 광양외식업지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하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보건소 직원 10명이 참여해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지역 외식업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덜어먹기 실천 등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음식물 쓰레기·회용품 사용 줄이기, 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음식점 입식 테이블·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지역 내 영업주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kjin@gwangnam.co.kr